

강동완 조선대 총장 “사퇴 않겠다”

“이사장에 제출한 사퇴서 순수한 취지 지켜지지 않아 무효” 차기총장 조기선출 논의 제안...교수평의회 등 반발 갈등 격화

정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자율개선 대학에 포함되지 못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거취를 이사장에 입힌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이 29일 사퇴 의사를 철회했다. 30일 개최 예정인 이사회에 상정된 ‘총장 직위해제’ 안건에 대해선 “합리적 명분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논의를 하자고 대학 구성원에 제안했다. 강 총장의 사퇴 입장 번복을 두고 대학역량 평가에서 탈락한 책임을 물어 즉각 사퇴를

요구해온 교수평의회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강 총장은 이날 담화문을 내어 “대학자치 운영협의회(대자협) 결의에 따라 이사장에 맡긴 총장 사퇴서는 그 순수한 취지가 지켜지지 않아 무효”라며 “대학 구성원간 불필요한 사퇴 논쟁을 끝내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새로운 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강 총장은 “지난 8월 사과문을 통해 구조개혁과 경영혁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총

장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법인 이사회와 대자협에 저의 거취를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대자협 정신에 따른 결의를 지키지 못하고 이해 타산에 따른 총장 자진사퇴 요구와 총장 해임 및 직위해제 안건을 계속 상정하면서 총장 권한을 침해하고 대학행정을 불안하게 하는 이사회의 모습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사퇴서를 제출하고 대자협 등에 거취 결정을 맡겼던 강 총장이 사퇴 의사를 철회하고 책임 차기 총장을 선출하자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동안 강 총장의 거취를 두고 대자협에서는 이번 학기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총장 직위를 보장하자고 했으나 교수 평의회

는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30일 예정된 조선대 이사회에서 강 총장 거취에 관해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이사회는 앞서 2차례 회의에선 강 총장 거취 관련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강 총장은 이와 관련해 “이사회 합의 명분 없는 총장 직위해제 안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법적 공방을 예고하기도 했다. 조선대 안팎에서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퇴 압박에 강 총장이 강공 돌파를 선언하면서 대학 구성원간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1 해질 17:21 달뜨기 --- 달짐 13:19

나들이 마스크 필수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겠다.

광주	구름많음	4/14	보성	구름많음	0/14
목포	구름많음	5/13	순천	구름많음	4/16
여수	구름많음	7/14	영광	구름많음	1/13
나주	구름많음	1/14	진도	구름많음	3/14
완도	구름많음	6/15	전주	구름많음	2/11
구례	구름많음	0/14	군산	구름많음	2/10
강진	구름많음	2/15	남원	구름많음	1/13
해남	구름많음	1/14	흑산도	구름많음	9/13
장성	구름많음	1/13			

◇바다 날씨

지역	앞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면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서~북	0.5
	면바다(동)	북~북동	0.5~1.0	북서~북	0.5~1.0
	면바다(서)	북동~동	0.5~1.0	북서~북	0.5~1.0

◇생활지수

보통	뇌출중
보통	감기
나쁨	미세먼지

◇물때

지역	간조		만조	
	시각	수치	시각	수치
목포	00:23	07:24	12:30	20:11
	08:20	02:20	21:34	15:03

◇주간 날씨

12/1(토)	2(일)	3(월)	4(화)	5(수)	6(목)	7(금)
☁	☁	☁	☁	☁	☁	☁
4/14	6/15	11/16	9/13	3/10	1/9	-2/4

5·18기념재단

“5·18 전후 10년간 美기밀문서 분석중”

5·18기념재단은 “미 국가안보기록관(National Security Archive, NSA)이 소장하고 있는 5·18 관련 기밀문서를 확보하고 분석중”이라고 29일 밝혔다. NSA는 1985년에 설립돼 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국가안보·외교·군사 등의 분야에서 미국정부가 생산한 각종 기밀문서를 수집해서 일반에 공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엔 확보된 자료는 5·18 전후 10년(1977~1988) 동안에 미국 정부가 생산한 한국관련 안보·군사·외교 비공개 기밀문서다. 총 235건 1000쪽 분량으로, 대부분 백악관·국무부·CIA 등 외교·안보 관련 부처에서 내부 회람·결재용으로 생산한 비방록(memorandum)·기안문·분석보고서 등이다. 문서 분석을 하고 있는 최용주 5·18재단 비상임연구원은 “5·18 당시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정세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봤고 정책을 수립했는지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라며 “10·26 및 12·12사태 관련 분석보고서, 5·18 당시 북한남침설, 김대중 내란음모 재판, 전두환 방미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5·18 재단은 해당 해제문을 자료 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



“한국 사람 됐어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우석환)는 29일 “귀화허가 예정자 8명을 대상으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다음달 20일부터는 국적 허가자를 대상으로 국민이래, 대통령 말씀(영상), 국적증서 수여, 태극기 전달 순으로 국적증서 수여식이 진행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 초미세먼지 순간 농도 전국서 가장 높았다

25~28일 최근 5년 가을중 최악 中 황사·국내 대기 정체가 원인

지난 25~28일 한반도를 덮친 중국발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PM-10) 농도가 최근 5년 가을 중 가장 높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보인 곳은 광주로, 28일 오후 6시 기준 82 $\mu\text{g}/\text{m}^3$ 라는 고농도를 보였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25~28일)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을 지상 관측 자료, 기상·대기 질 모델을 통해 종합

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24일 비가 내린 이후 국외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대기 정체 상태가 지속하면서 국내 오염물질까지 축적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중국 내륙을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 기류를 따라 남동진해 27일 오후 6시께 수도권권을 시작으로 점차 내륙으로 확대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정점에 달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 대기오염집중측정소 5곳의 측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사의 영향을 받은 27~28일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17~313 $\mu\text{g}/\text{m}^3$ 로 황사 발생 전보

다 4~7.3배 높았다. 울기를 들어서는 처음 한반도에 들어오긴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26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89시간 발령됐다. 허국영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황사가 아니면 미세먼지 농도가 200~300 $\mu\text{g}/\text{m}^3$ 수준으로 치솟는 게 불가능하다”며 “전국적으로 이번 조사 기간에 최근 5년간 가을 중에서 농도가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기간 국내외 초미세먼지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국 기준으로 국외 영향은 51~66%로 나타났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신안 흑산도 서북 해역서 규모 3.3 지진

29일 새벽 3시5분 23초 신안군 흑산도 해역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지진 발생 위치는 신안군 흑산도 서북서쪽 92km 해역으로 북위 34.94도, 동경 124.53도이다. 지진 발생 깊이는 13km다.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이어서 이렇다 할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관계당국은 전했다. 한편 기상청은 지난 28일부터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을 단축하고, 이용자 위치별 지진 진도정보 서비스에 들어갔다. 기존의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은 지진 관측 후 15~25초 정도가 소요되었지만 앞으로는 7~25초 수준으로 단축된다. 진도 정보는 지진 진원지와의 거리에 따라 진동의 세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정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서림 방지제 일부 제품 가슴기 살균제 성분 검출

시중 판매되는 일부 김서림 방지제에서 사용이 금지된 가슴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2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1개 검사 제품(자동차용 7개·물안경용 7개·안경용 7개) 중 10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 메틸이소티아졸론(MIT)이 확인됐다. 8개(자동차용 3개·물안경용 2개·안경용 3개) 제품에서 검출된 아세트알데히드 수치는 안전기준(5mg/kg 이하)을 최소 1.8배(9mg/kg), 최대 39배(195mg/kg)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스프레이형 3개(자동차용 1개·안경용 2개) 제품에서는 CMIT(최소 1.2mg/kg ~ 최대 14.5mg/kg)와 MIT(최소 1.0mg/kg ~ 최대 7.4mg/kg)가 검출됐다. CMIT와 MIT는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는 가슴기 살균제 성분이다. 소비자원은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김서림 방지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와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업체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

맛있는 비빔밥 한 그릇!

함평생비빔밥

함평생고기비빔밥은 푸짐하게 들어가는 한우생고기와 데친 야채, 소 뼈를 우려낸 맑은 선릿국과 삶은 돼지기둥이 곁들여 나온다. 생고기 비빔밥과 함께 나오는 맑은 선릿국과 삶은 돼지기둥은 생고기비빔밥의 고소한 맛을 더하는 함평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음식문화 이기도 하다.

함평생비빔밥 어울림마당 축제 개최

일자 : 2018. 12. 7. (금), 장소 : 함평 5일시장 내 식재료 센터